

교회를 살릴 제자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시84:9-12, 딤후1:12-19

정윤돈 목사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성공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분이 남은 자, 겨우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어린 시절에 제자를 양육하는 것, 언약을 전달하는 것, 믿음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대학청년부를 보면 어른들보다 믿음이 좋다. 이번에 합숙할 때 추석명절에 몇 십 명이 합숙가고, 팀 합숙으로, 방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약전달이 되었구나.' 생각한다. WRC에 2,0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훈련되어지고, 곳곳에 영적서밋, 기능서밋으로 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훈련을 받는 것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후대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는 모든 부분의 리더가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리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찌다가 선교사님 밑에서 몸종같이 일을 했다. 머리도 좋고 똑똑해서 선교사님이 공부를 시켜서 의대를 보냈다. 그 분이 돌아오셔서 우리 지역의 의사가 되어서 오셨는데, 얼마나 봉사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복지시설을 이 분이 계속 도와줬던 것이다. 결국은 우리 부모님의 주례도 그 분이 하셨다. 그 분이 은퇴하시고 가신 교회가 오금중앙교회였다. 대단한 응답을 받으셨다. 85세 되었는데 20살 어린 분과 재혼하셔서 응답을 누리고 계신다. 복음 안에 있으면 말년까지 응답을 받는다. (웃음) 오랜만에 옛그제 전화가 왔는데 '나 누군지 알아?' 하신다. 아직도 목소리가 정정하시고 좋더라.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었다. 저분이 그렇게 존경받고 잘 되었는데 믿음 있는 자녀, 후대들이 없다. 제자를 키우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우리 교회, 지역,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될 줄을 믿는다. 왜냐하면 제자가 있어야지 그 일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제자이다.

오늘 살피볼 디모데전서가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첫 전도여행에서 만난 디모데가 최고의 큰 도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편지를 보낸 것인데, 문제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탁전도를 부탁한 것이다. 빨리 성도들이 성장해서 내가 가지 않더라도 권사님, 장로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현장을 맡겨도 걱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교회 안에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앙에서 문제가 났다. 어린 아이도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안 해.' 한다. 지난번에 말씀에서 '노노노'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다. 그 때 마침 김형덕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예배 때 선교사님과 딸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께 '노노노' 하는 것이다. '네네네'할 때는 놀렸는데 '노노노' 하니까 너무 치유되는 것 같다.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구나. (웃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 드린다. 우리는 진리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정 안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네, 알겠어요.' 하면 얼마나 예쁘게. 목사님에게 이유 없이 보고하고, 이유 없이 찾아오고, 대화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확 살아난다.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류목사님 메시지가 좋아도 얼마나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은지,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 불만 불평이 있으면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영적자세가 아니니까.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우리의 영적상태가 그래서 그렇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 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줄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을 믿는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훌륭할수록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라. 앞으로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공부 좀 하더니 '목사님 설교는 다 틀렸어. 통계도 다 틀렸고. 교회가 뭐 이래?' 하면 여러분의 영은 죽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도 주차관리 잘 해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야지 세계와 교회를 정복할 수 있다.

디모데는 교회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엔 위탁받은 교회 에베소와 전 세계를 살리는 후대가 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핵심내용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고 살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

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1.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원칙적인 것이다.

(1) 행1:1,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이다. 오직 성삼위 그리스도만이 죄, 사탄,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과학과 지식으로도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평신도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를 죽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다. 신학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인 지식, 철학을 끌어들이어서 오직 예수라는 것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 다 죽었다.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비신화화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참 창조적이다. 단어는 훌륭하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인 요소, 기적적인 요소를 성경에서 다 뺏아버리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일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 신학자가 말하는 비신화화라는 것이다. 창조도, 기적도, 부활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물론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 증거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지만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란다. 그 어떤 인간도 안 되는 것이다. 완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분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직이다. 오직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2)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난 자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이 행1:3,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사람은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왕,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다.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고 기분이 나쁘가. 인간인지만 잠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0.1초 만에 회복해야 한다. 오뎅이처럼 회복해야 한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 넘어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축원 드린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이 있다. 나는 지난 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평강이 없다고 한다. 강조법인 것이다. 보니까 사명자 일수록 문제가 너무 많다. 너무 복음으로 누리고 결론 낸 사람은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 분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이 사람만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을 주의하라고 한 것이다.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탄이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사탄이라도 사명자부터 흔들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3)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행1:8이다. 그리스도를 조금만 바라보고 묵상하면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살릴 수 없다. 어제 대학청년부들을 만났는데 너무 사명자이고 믿음이 좋다. 그런데 잠재의식, 무의식을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것이 많다. 염려, 힘든 것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염려, 동기, 불신앙, 돈, 갈등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당연히 받게 된다.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현장으로 가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현장의 문, 만남의 문을 여신다. 이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딤후6:11에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다. 디모데는 교회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성도, 종직자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한다. 목사님,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세상 사람아, 세상에 묻은 사람아"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2. 교회를 살리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내용은 무엇이었는데?

디모데전서의 내용들이다.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와 종직자와 램েন্ট들이 꼭 지켜야할 실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읽으시면서, 특히 6장까지 읽으시면서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갱신해야 하는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지만, 디모데전서는 사실 디모데에게 준 것은 아니었다. 성도들에게 다 읽고

실천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1)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다. 1:3에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렇게 이단이 많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가 피지 섬까지 갔다. (웃음) 마지막 피난처라고 하면서 간 것이다. 너무 순진하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겠구나.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강한 사람이 나오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 분도 천만다행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따라갔지. 다른 것 만나면 다른 것을 따라갈 사람들도 있다. (웃음) 여러분이 다 순진하고 착해서 다른 사람 만났으면 따라갔을 것이다. 피지 섬에 갔을 수도 있다. (웃음)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 사람도 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절대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례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조상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이다. 도를 닦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해야 할 것은 많다. 그것을 다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한다. 마5:20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강조법, 과장법인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삶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62가지 하지 않는가. 율법을 강조하는 삶보다 훨씬 멋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그 내용을 디모데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함속에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기차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그 분을 밀치더니 '그리스도' 하면서 탔다고 한다. '영적으로 문제가진 사람 많아' 하면서 빼졌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모이는데 질서정연하다. 연차가 짧은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스텝들한테 상처를 주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훈련이 짧은 사람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지 모른다.

(2) 배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다. 딤후1: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도한 이 메시지는 예언이다. 그냥 말로 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이다.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지 않는가.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 드린다.

(3) 딤후1: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착한 양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믿음도 파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믿었으니까 양심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 양심에 거리가 없는 일반 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신자보다 양심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많다. 성경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양심도, 성격, 성질도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양심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총이다. 비가 오면 여러분은 피하지 않는가.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따갑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 그것만 해도 성공한다. 처음으로 인격도 새로워지시기를 축원 드린다.

(4) 딤후2:1-4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고 했다.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다.

(5) 딤후2:8-15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규모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부상담, 청소년 상담, 결혼, 중독 인간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그 시대에 맞는 내용이다. 오늘은 다른 부분도 있다.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독서포럼과 인턴십을 통해서 이러한 규모를 준비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6) 딤후3:1-6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라고 말한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인 목사, 장로, 권사가 갖춰야 할 당연한 경건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과 특히 사역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도자의 삶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도전하고 끊임없이 갱신해야 한다. 그 내용을 짚 이야기하자면, '책임할 것이 없으며.' 교회 감독과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책임할 것이 없다. 여기에 도전하기를 축원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일구어언을 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 래야지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흑암을 꺾고 현장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준비를 하는 성도들과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7) 마지막 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너희는 부자에게 명하여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써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과부도, 부자도 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교회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한 미션을 준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살리고, 치유해야 하는가.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는 유서와 같다. 위탁한 것이다. 왜 죽는 날까지 디모데에게 위탁했을까. 이 중심이 전달된 제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살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겠다.

(1) 교회만이 근본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새 TV를 보면 채널이 그렇게 많다. 스포츠, 정치적 토론, 연속극, 영화도 많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몇 시간을 봐도 그렇다. 축구 중계할 때 전 반전, 후반전 해서 90분을, 연장전 30분을 봐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솟 하셨습니다.' 하는가. '구원 끝임.' 그런 소리 들어보셨는가. '사탄이 태클했습니다. 저건 쫓아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들어봤는가. 그렇게 축구하는데도 그냥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면 너무 좋아하지 않는가. 공이 들어가는 것 보다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릴 때 천국에서는 황금 종이 울린다고 했다. 천사가, 하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복음 전하는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 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말을 대학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하는가? 어 디서도 말하지 않는다. 교회만이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곳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어디를 가도 어떤 특강을 들어봐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2) 교회만이 해결해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대학에서 학문으로 사회문제, 부부문제, 가정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옛 그제 심방 갔는데 심각한 문제 속에서 서로 복음 이야기하더라.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복음 이야기하니까 싹 통해버리더라.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화해가 되고, 참을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복음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자임을 믿기를 바란다.

(3)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복음적인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때 가능함을 알기를 바란다. 국가에서 경제정책을 잘 세우면 우리나라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 같은가? 역사는 그렇지 않다. 정말로 복음적인 교회가 곳곳에 설 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을 믿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잘 한 것이 하나 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운명 사주팔자를 강조하면서 길 하나, 부뚜막 하나를 마음대로 고치지 못했다. 고치려면 점쟁이, 지붕귀신, 부뚜막귀신이 노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 대통령이 한 것은 미신 타파, 길을 다 뚫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경제가 살아난 줄을 믿기를 바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약간의 믿음으로 살았던 지도자들 덕분에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복음가진 교회가 설 때 정치, 경제, 문화, 지식, 과학,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복음가진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총만함의 총만 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한 줄을 믿기를 바란다. 교회가 복음으로 총만해질 때 나머지 모든 부분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를 살리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로 쓰임 받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 시대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역량으로 우리의 인격과 자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이 진리를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저희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가치를 이해하고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